

**법화경 행자,
니치렌 대성인**

니치렌 대성인은 전 인류가 불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불법의 가르침을 설립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불계의 생명상 태를 가지고 있다는 법화경의 탁월함을 설하시며, 일체 중생이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부처의 생명을 용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주 근본의 법인 남묘호렌계교를 부르는 불도수행을 만들어 주셨다.

불교에서는 대성인 재세시인 말법이 되면 불도수행자들 사이에서 온갖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 시기에 대해 대집경에 나오는 석존의 말을 인용하여 “나의 법중에 있어서 투쟁언송하여 백법은 몰허리라. (선시초 258 쪽)”고 말씀하셨다. 대성인은 대집경 및 타경에 비추어 말법시대가 되면 불교의 가르침이 퇴색하여 더 이상 괴로워하는 민중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간파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러한 확신에 입각하여, 대성인은 사람들이 무명에서 벗어나 묘법의 정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 불법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절복행을 설립하셨다. 대성인은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권력자의 심한 박해로 사도유배와 참수 명령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체중생을 불행에서 구제하겠다는 무한한 자비와 서원이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대성인을 견디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일체중생을 행복으로 이끌겠다는 서원

고쳐하는 불행한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을 습득하겠다는 대성인의 결의는, “일본 제일의 지자(知者)가 되게 하소서. (어서 888 쪽)”라는 어린 시절의 기원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 전역을 돌며 일체경을 공부한 후 대성인은 법화경이야말로 일체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전이며, 묘법의 정수인 남묘호렌계교를 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대성인은 자신의 사명을 지용의 보살중 으뜸인 상행보살에 비유하고 있다. 석존은 법화경에서 지용의 보살 중 상수인 상행보살에게 백법이 은몰하는 말법시대에 법화경 흥통을 의탁했다.

말법의 가르침을 유포하는 사람은 “혹은 매리하고, 혹은 때리고, 혹은 유죄하고, 혹은 목숨을 끊는 등 (아서 1459 쪽)”이라는 아서 말씀대로 박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성인은 자신의 가르침을 설립하는 데 따르는 대박해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계셨다. 사실 이러한 박해는 불법의 위대한 가르침을 올바르게 유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고 계셨던 것이다.

1253년 4월 28일 당시 수학하고 있던 세이쵸사에서, 대성인은 염불종을 과절함과 동시에 당당하게 남묘호렌계교를 부르며 말법의 민중을 구제하는 유일한 정법을 선언하셨다. 이는 새로운 종파를 설립했다기 보다, 좀 더 정확히 말해 남묘호렌계교라는 정법의 입중선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니치렌 대성인이 법화경 행자로서 말법의 민중구제를 위해 일생을 바치게 된 계기가 되어 그로부터 어떠한 대난과 박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니치렌이라고 자칭하는 것은 자해불승이라고도 해야만 하리라. (아서 903 쪽)”라고 설명하시면서, “렌초”라는 당시의 이름을 니치렌으로 개명하였다. 즉 니치렌이라는 이름은 상행보살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의와, 묘법 및 성불에 대한 심오한 자각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니치렌의 “니치(日)”란 태양을 뜻한다. 법화경에서는 “일월(日月)의 빛이 무명과 어둠을 몰아내듯이, 사람이 세상에 나아감에 있어 인류의 어둠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한다. 대성인은 이 구절을 인용해 남묘호렌계교의 오자로서 어둠과 무지를 몰아내는 상행보살의 역할을 설명하시고 있다.

묘법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생명에서 태양처럼 빛난다. 그 빛님이 그 사람의 성격과 말, 행동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인생에 드리운 고통의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렌(蓮)”은 진흙탕에서도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연꽃을 나타낸다. 이것은 아무리 불순하고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서 순수하게 꽃을 피우는 불계의 생명인 묘법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렌”이란 인간 생명에 내재한 소중함과 존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묘법흥통을 위해 박해에 맞서다.

니치렌 대성인은 1253년 입중선언을 한 날로부터 종교적 박해에 직면하게 되는데, 1260년 “입정안국론”을 제출하면서부터 차례로 대난을 만나게 되었다. 아서에 “사소한 난은 부지기수이고 대난은 네 번인데 (아서 200 쪽)”라고 쓰신 대로 네 번의 법난은

- 1) 미쓰바키야쓰 법난 (1260년)
- 2) 이즈유죄 (1261년)
- 3) 고미쓰바라 법난 (1264년)
- 4) 다쓰노구치 법난과 사도유죄 (1271년)이다.

대성인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악구매리당했고, 막부 권력자에 의한 초막 습격과 처형 등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맞기도 하였다.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의行者 혹은 말법의 진정한 수행자는 삼류의 강적의 공격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법화경 13 장에서는 법화경 行者가 칼과 무기로 공격당하고, 유배당하고, 악구매리 당하는 등 여러가지로 난을 만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성인은 올바른 정법을 유포하겠다는 결의로 대난과 박해에 맞섰다. 생명으로 법화경을 읽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행에서 허덕이는 민중을 구하겠다는 자비로 계속해서 묘법의 가르침을 유포해 나갔다. 자신이 법화경의 行者라는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부 즉 부처, 부처 즉 범부

대성인은 “개목초”에서 “니치렌의 법화경의 지혜는 천태, 전교에는 천만의 일본도 미치지 못하지만, 난을 견디고 지비가 뛰어났음은 공구함마저 가질 것이로다. (개목초 202 쪽)”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 구절은 엄청난 대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대성인의 대처비의 생명경애를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결국은 천도 버리고 대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 나는 일본의 기둥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안목이 되겠노라. 나는 일본의 대선(大船)이 되겠노라. 이렇게 맹서한 원은 깨뜨리지 않겠노라. (개목초 232 쪽)”라고도 쓰시고 있는데, 이는 말법에 고통받는 민중을 구하기 위해 모든 대난을 이겨내겠다는 강한 결의를 담은 니치렌 대성인의 사자후가 잘 느껴지는 대목이다. “니치렌은 일본국의 제인에게 주(主), 사(師), 부모이나라. (개목초 237 쪽)”는 대목에서는 자신이 부처의 삼덕을 갖추고 있다고 선언하시고 있다.

법화경에서 예언한 대로 계속해서 박해와 맞서며 매번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낸 대성인은, 평범한 사람도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불계의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범부 즉 부처, 부처 즉 범부라는 법화경의 정수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성인은 “니치렌이 말법에 나오지 않았다더라면 부처는 대망어의 사람이요, 다보, 시방의 제불은 대망의 증명이로다. 불멸후 이천이백삼십여년간 일념부체내에서 부처의 말씀을 도운 사람은 단 니치렌 한 사람이나. (성인어년사 1190 쪽)”라고도 쓰시고 있다.

부처의 가르침의 정수를 유포할 수 있는 상행보살의 수행은 “제경 중 으뜸” 또는 말법의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니치렌 대성인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말법의 제경 중 으뜸인 가르침으로 고통받는 민중을 구제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다.

발적현본

1271년 9월 12일 오후, 헤이노사에몬과 수백의 무장한 병사들이 니치렌 대성인을 체포하였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대성인을 역적처럼 취급하며 체포하여 재판도 없이 사도로 유배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성인은 “겉으로는 원류라고 들었지만 안으로는 목을 자른다고 정했느니라. (어서 356 쪽)”라고 쓰시고 있다.

한 밤중에 다쓰노구치의 해변으로 끌려가 자신을 참수하려는 망나니의 칼 앞에서 니치렌 대성인은, 제자인 시조강고에게 “이처럼 기쁜 일이니 웃으시오 (사도초 914 쪽)”라고 말하며 법화경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대복운이라고 표현하시고 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하늘에서 갑자기 동그란 공 모양의 광채가 번쩍이면서 지나갔고, 그에 놀란 병사들이 겁에 질려 참수형을 집행하지 못하자 막부는 대성인을 다시 사도로 유배보내게 된다.

다쓰노구치 법난을 통해 대성인은 발적현본의 원리를 실현하신 것이다. 다쓰노구치 법난 다음 해에 사도에서 쓰신 “개목초”에서 대성인은, “니치렌이라고 하는 자는 거년 9월 12일 자축의 시에 목이 잘렸느니라. 이는 혼백이 사도의 땅에 와서 다음 해의 2월 설중에 써서 유연한 제자에게 보내나… (223 쪽)”라고 쓰시고 있다.

이에 대해 이케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 “대성인에게서 실제로 참수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목이 잘렸다”고 말한 것은 다쓰노구치의 형장에 갈 때까지의 대성인 자신을 나타낸다. 간단히 말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혼백이 사도의 땅에 와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혼백이란 다쓰노구치의 형장에서 발적현본하신 새로운 대성인 자신을 말한다. (어서의 세계 2 권 82 쪽)”

대성인에게서는 “발적”을 통해 “진실의 말과 이름을 듣는 상태”인 범부로서의 모습을 버렸다. “진실의 말과 이름”이란 부처의 가르침을 뜻한다. “상태”란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처의 수행을 처음 시작하였으나 아직 그 수행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현본”이란 대상인께서 범부의 생명 안에 영원한 부처의 생명을 용현하여 무한한 환희를 느끼는 부처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범부의 모습하면서도 말법의 부처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케다 회장은 어서의 세계에서, “광선유포를 위해 헌신하며 신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뎌 나간다면 우리도 발적현본할 수 있다. 범부의 모습으로 대상인이 갖고 계셨던 것과 같은 부처의 생명을 용현할 수 있는 것이다. (어서의 세계 2 권 85 쪽)” 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상인은 발적현본 후에 만다리인 어본존을 도현하셨다. 우리 생명 안에 내재한 불성을 용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중생들이 근본으로 해야 할 대상인 어본존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나치렌 대상인께서는 자신이 법화경의 행자임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대난을 받으셨다. 석존의 예언을 수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념부제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당당하게 불법의 가르침을 유포해 오셨던 것이다. ■